



백삼위 한인성당

The 103 Saints Korean Catholic Center 2701 W. 237th St./ Torrance/ CA 90505
http://www.103skcc.org

사순 제3주일(성 요셉 성월)
제31권 18호(가해) 2011.3.27

[묵상]



사마리아의 한 고을을 지나시던 예수님
영원한 생명의 샘이신 그분께서
유대인은 상종하지도 않던 사마리아 여자에게
“나에게 마실 물을 좀 다오.” 하십니다.

영원히 목마르지 않는 물을 주시려고
저희들에게 말을 건네시는 예수님,
다시 목마를 물에 목말라 하지 말고
하느님께서 저희를 위하여 마련하신 선물인
영원히 목마르지 않을 물을 찾으라하십니다.

목마름이 어디에서 기인하는지 몰라
끊임없는 갈증에 신음하는 저희에게
하느님의 선물인 예수님,
주님을 향한 저희의 목마름을 일깨워주시고
저희들 내면에서 샘솟는 샘이 되시어
저희를 영원히 목마르지 않게 하십니다.

마지막까지 “목마르다” 외치신 주님,
당신의 목마름은 아버지의 뜻을 실천하고
그분의 일을 완수하는 것이었으니
당신께서 참으로 세상의 구원자이심을 깨달아
주님의 목마름을 풀어주는 저희가 되게 하소서.

- 柜 -

martinlee0501@hanmail.net

미사

민첸시오회 (어려운 이를 돕는 연락처) : (310) 283-5879
연령회 (장례식 연락처) : (310) 720-8240

수요일	저녁 미사	오후	7:30
목요일	저녁 미사	오후	7:30
금요일	아침 미사	오전	8:30
토요일	성모신심 미사(첫토요일) 특전미사(청년미사)	오전 오후	8:30 7:00
주일	아침 미사 학생미사(영어) 낮 미사	오전 오전 오전	7:30 9:30 11:00

주간 행사표

수요일	면담의 날 (신부님, 수녀님) 예비자 교리반 레지오 마리에	오후 2:00 오후 8:00 오후 8:00
목요일	성 시간 (첫목요일) 레지오 마리에 전신자 성경통독	저녁 미사후 오전 9:00 오전 11:00 오전 10:00, 오후 8:00
금요일	병자영성체(1째주) M.E. Sharing(3째주)	오전 10:00 오후 7:00
토요일	유아세례(작수달 4째토요일) 성령기도회 배론 청년모임	오후 6:00 오후 8:00 오후 6:00
주일	병자 영성체 / 레지오 마리에 아도라페 성가대 글로리아 성가대 1째주 - 구역장/반장 회의 2째주 - 모임의 날 ● 요셉회/안나회/양업회, 성모회/ 자모회, 대건회/원서회 ● 꾸리아 3째주 - ● 빈첸시오회 ● 울뜨레아 ● 행사의 날 4째주 - 사목회 가정의 날	오전 중 오전 8:30 오전 9:00 오후 1:00 오후 1:00 오후 2:30 오전 9:00 낮미사후 오후 1:00

- ※ 고해성사 : 평일미사, 토요특전미사 15분 전, 주일미사 20분 전
- ※ 혼배성사 : 6개월 전에 사무실에 필히 접수
- ※ 병자성사 긴급연락처 : 218-8432(신부님), 218-8282(수녀님)
- ※ 병자영성체 : 사무실로 신청

주임신부 : 이장환 마르티노 (310)326-4350 Ext.103/106
전교수녀 : 문 밥티스타 (310)326-4350 Ext.102
종신부제 : 최영선 프란치스코 (213)637-9000
평협회장 : 이재정 사도 요한 (562)403-7345
사무실 : (310)326-4350 Ext.100 Fax: (310)326-4360

토 요 특전미사	(연) 권순봉 요안나, 이재숙, 어봉순 (생)
주 일 낮 미사	(연) 민소에 모니카, 권순봉 요안나, 홍숙녀 마리아, 모병익, 박송희, 이현호 요한, 이재숙, 고준희 제임스, 김진성 루스, 임홍규 베드로, 주리회 요셉과 조상님들, 엄은섭 도로테오 (생) 이덕철 루카 & 이민상 요한, 김충섭 마틴 & 김정심 크리스티나 가정, 정학순 발라라, 민석준 토마스 & 민영준 마르코, 박순자 안젤라

오늘의 전례

제 1독서 탈출기(Exodus) 17,3-7

화답송 ○오늘 너희는 주님 목소리에 귀를 기울여라.
너희 마음을 무디게 하지 마라.



○어서 와 주님께 노래 부르세. 구원의 바위 앞에
환성 올리세. 감사하며 그분 앞에 나아가세.
노래하며 그분께 환성 올리세.○

○어서 와 엎드려 경배드리세. 우리를 내신 주님 앞에
무릎 꿇으세. 그분은 우리의 하느님, 우리는 그분
목장의 백성, 당신 손이 이끄시는 양 떼로세.○

○오늘 너희는 주님 목소리에 귀를 기울여라.
“트리바에서처럼, 마싸의 그날 광야에서처럼,
너희 마음을 무디게 하지 마라.
거기에서 너희 조상들은 나를 시험하였고,
내가 한 일을 보고서도 나를 떠보았다.”○

제 2독서 로마서(Romans) 5,1-2,5-8

복 음 ○그리스도님, 찬미와 영광 받으소서.

환호송 ○주님, 당신은 참으로 세상의 구원자이시니,
저에게 영원히 목마르지 않을 생명의 물을 주소서.○

복 음 요한(John) 4,5-42

영성체송 주님이 말씀하신다. 내가 주는 물을 마시면, 네 안에서
생명의 샘이 솟아나리라.

오늘의 성가

	청년미사(특전)	아침 미사	낮 미사
미사곡	51-58		33-42
입당	149	151	153
봉헌	We Fall Down	270	268
성체	주 말씀 향하여	283	283
파견	152	156	154

4. 너희가 바로 나에게 해준 것이다.

- 인간 생명의 새로운 문화를 위하여

▶생명의 복음을 선포함

우리는 또한 새로운 생명문화의 건설을 위한 공동의 투신 속
에서, 믿지 않는 이들과 만나고 대화하기 위한 중요한 합치점
들도 찾아내야 한다.

수많은 반대 의견들 앞에서, 그리고 인간 생명에 관한 건전한
교리에 대한 광범위한 거부 앞에서, 바오로가 디모데에게
했던 간곡한 당부의 말씀이 우리에게도 해당된다는 것을 느낄
수 있다. “하느님의 말씀을 전파하시오. 기회가 좋든지 나쁘든
지 꾸준히 전하고 끝까지 참고 가르치면서 사람들을 책망하고
훈계하고 격려하시오.”(2티모 4,2). 이 당부는 여러 가지 다양
한 방식으로 진리의 “교사”로서 지닌 사명에 직접 참여하는
교회 구성원들 마음속에 특히 힘있게 울려 퍼져야 한다. 이 당
부는 누구보다도 주교들인 우리들을 위해서 울려 퍼져야 한다.
우리는 생명의 복음에 대한 지칠 줄 모르는 설교자로서 첫 번
째로 부르심을 받은 사람들이다. 또 우리에게는 이 회칙 안에
서 일단 선포된 교리가 성실하게 온전히 전달될 수 있도록 보
장해야 할 책임도 주어졌다. 우리는 이 교리에 반대되는 모든
가르침으로부터 신자들을 보호하기 위해 적절한 수단들을 동
원해야 한다. 우리는 신학부, 신학교, 가톨릭 연구 기관 등에서
건전한 교리를 가르치고, 설명하고, 더 충실히 탐구하도록 확
실히 해야 한다. 바오로의 당부가 모든 신학자, 사목자, 교사들
과, 교리교육과 양심교육을 책임지고 있는 모든 사람들의 마
음을 뒤흔들어야 한다. 그들이 자신들의 특별한 역할을 깨닫
는다면, 교도권에 의해서 성실하게 제시되고 해석된 생명의
복음을 거슬러서 개인적인 생각들을 주장함으로써 진리를 배
신하고 자신들의 사명을 배신하는, 통탄할 만큼 무책임한 태
도를 보일 수는 없을 것이다.

이 복음을 선포하는 과정에서 적대시되고 인기를 누리지 못하
는 것을 두려워해서는 안된다. 그리고 우리를 세상의 사고방
식에 따르게 만들(로마 12,2참조) 어떠한 타협과 모호성도 거
부해야 한다. 당신의 죽음과 부활로 세상을 이기신(요한
16,33 참조) 그리스도에게서 힘을 얻는 우리는 세상 안에 있
어야 하지만 세상에 속해서는 안된다.

▶생명의 복음을 경축함

83). 우리는 “생명을 위한 백성”으로서 세상에 파견되었기 때
문에, 우리의 선포는 생명의 복음에 대한 참된 경축이 되어야
한다. 이 경축은 그 행위와, 상징과, 의식(儀式)이 지닌 환기시
키는 힘을 통해서 이 복음의 아름다움과 장엄함을 전달하는,
귀중하고 의미심장한 무대가 되어야 한다.

그렇기 위해서 우리는 무엇보다도 먼저, 우리 자신과 타인들
안에 관상적인 시각을 길러야 한다. 이러한 시각은 모든 사람
을 “오묘하게”(시편 139,14 참조) 창조하신 생명의 하느님께
대한 신앙 안에서 생겨난다. (◆계속)

주님께서 주시는 생명의 물

통일 왕국이었던 이스라엘이 솔로몬왕 시대 이후에 북쪽은 이스라엘 왕국, 남쪽은 유다 왕국으로 분열되었습니다. 그때 사마리아는 북이스라엘의 수도였습니다. 그런데 북이스라엘이 강대국인 아시리아에 점령당합니다.(기원전 722년경) 아시리아 군대는 사마리아 지역을 점령한 뒤 식민지정책으로 잡혼을 실시했습니다. 따라서 사마리아에 이민족을 이주해서 살게 했습니다. 그래서 사마리아 지역은 잡혼으로 종족 간의 피가 섞이게 됩니다.

민족의 혈통을 목숨처럼 지키려는 유다인들은 사마리아지역의 사람들을 이방인이라 생각하게 되었습니다. 유다인들은 순수한 정체성을 보존하지 못한 사마리아인들을 심지어 개라고 부르며 폄하했습니다. 그래서 유다인과 사마리아인은 오랫동안 원수지간처럼 지냈습니다. 따라서 예수님 당시의 풍습으로 유다인은 사마리아 사람과 상종하지 않았습니다.

오늘 복음은 야곱의 우물가에서 이야기가 시작되고 있습니다. 이 이야기 속에 예수님이 어떤 분인지 잘 드러나고 있습니다. 예수님은 사마리아 여인에게 먼저 다가가 이야기를 건넵니다. 당시로는 생각할 수 없는 일이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예수님이 먼저 사마리아 여인에게 다가가셨습니다. 더구나 그녀는 사람들의 눈을 피해 아주 더운 낮에 물을 길으러 나올 정도로 몇몇하지 못한 삶을 살고 있는 여자였습니다.

아니나 다를까. 여인은 예수님의 접근을 마땅치 않게 생각합니다. 그러나 주님은 계속해서 여인의 마음을 열기 위해 대화를 시도합니다. 대화 끝에 예

수님은 여인에게 분명하게 말씀하십니다.

“내가 주는 물을 마시는 사람은 영원히 목마르지 않을 것이다. 내가 주는 물은 그 사람 안에서 물이 솟는 샘이 되어 영원한 생명을 누리게 할 것이다.” 인간의 끝없는 목마름을 채워주고 영원한 생명을 누리게 해준다니 말만 들어도 가슴이 쿵쿵 뛸다. 그 영원히 목마르지 않는 물을 주실 분이 누구입니까? 우리에게 먼저 다가오셔서 손을 잡아주시는 예수님입니다. 주님을 믿고 그분이 가르치시는 대로 진리의 길을 따라 산다면 우리도 영원히 목마르지 않는 생명수를 마시게 될 것입니다. 주님께서 사마리아 여인에게 영원히 목마르지 않는 생명수, 즉 구원의 복음을 약속하셨던 것처럼 말입니다.

오늘의 복음은 아름다운 하느님의 사랑을 보여주는 한편의 드라마 같습니다. 한순간 주님의 만남이 사마리아 여인의 삶을 구원으로 이끌었습니다. 주님을 향한 우리의 목마름, 그 갈증을 해소해주시는 주님의 은총을 느낄 수 있어 마음이 따뜻해집니다. 우리도 이 거룩한 사순절에 복음에 나오는 사마리아 여인처럼 주님을 만나 영적 갈증을 풀고, 주님의 사람이 된다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그런데 주님께서 이미 목마른 우리 곁에 와 계십니다. 얼마나 고맙고 감격스러운 일입니까?

◆허영엽 마티아 신부 /

서울대교구 문화홍보국장

이번 주 전례 봉사자

이번 주	토요특전 (청년미사)	아침 미사	낮 미사
해설자	송민영 보나	박희자 마리아	정미영 미카엘라
제1독서자	전지오 글라라	이상철 크리스토퍼	이영석 크리스토퍼
제2독서자	박소영 프란치스카	이희경 크리스티나	전하현 마리아
제물봉헌자			P.V. 3반

다음주 전례 봉사자

다음 주	토요특전 (청년미사)	아침 미사	낮 미사
해설자	송민영 보나	신덕례 테레사	최진수 에우세비오
제1독서자	이상용 엘리아	김교복 레오	송현식 바오로
제2독서자	박소영 프란치스카	서용숙 에스텔	김금자 테레사
제물봉헌자			토런스 서 3반

본당 설립 30주년 기념 주제

"주님께는 찬미를, 이웃에게는 사랑을, 살천하는 믿음 속에 성장하는 백삼위"

- ◆ 교무금은 제 달에, 주일헌금은 정성껏 봉헌합니다.
- ◆ 미사시간에 늦지 말고, 일찍 와서 묵주기도를 바칩시다.

✦ 사순시기 ✦

◆ 사순절 전신자 십자가의 길...금요일 7:30 저녁미사 후

- 사순 제3주간 금요일(4월1일) : 토런스 북구역
- 사순 제4주간 금요일(4월8일) : 하버/카슨 구역
- 사순 제5주간 금요일(4월15일) : P.V. 구역

◆ 사순절 희생 애공봉투를 잘 준비합니다.

- 우리 가족의 희생, 극기, 보속, 선행으로 모아진 성금을 하느님 대전에 정성껏 봉헌합니다. 사순절 희생봉투는 주님 판찬 성목요일(4월21일) 미사 중에 봉헌합니다.

◆ 사순 판공성사 : 4월6일(수)

- 미사 및 참회예절 : 오후 7시30분
- 고해성사 : 오후 8시부터(주일학교도 같은 일정)
- 공동보속 : ①로마서 통독 ②선행1회 ③주모경 1회
이중 두가지 이상 선택.

* 사순에 드리는 고해성사는 판공성사로 올려드립니다.

◆ 4월 봉성체 : 4월1일(금) 오전 10시

◆ 4월 성모신심 미사 : 4월2일(토) 오전 8시30분

◆ 레지오 아치에스 행사

- 일시 : 오늘 주일(27일) 오후 1시, 강당
- 복장 : 정장 및 한복(점심 제공합니다.)
- 문의 : 꾸리아단장 최기남 야고보 ☎(310)569-3940

◆ '일본 대지진/쓰나미 이재민 돕기' 주일학교 쿠키 판매

- 일시 : 오늘 주일(27일) 미사후
- 주일학교 학생들이 직접 구워서 만든 맛있는 쿠키와 시원한 음료를 판매합니다. 어르신들의 많은 관심 부탁드립니다. ☎(310)709-3343 김나기 바오로

◆ 전례본과 성주간 준비 모임

- 일시 : 4월3일(주일) 오후 2시30분, 강당
- 참석대상 : 해설단, 독서단, 복사단, 제대회, 성가대 지휘자, 안내봉사단
- 문의 : 윤희동 안토니오 전례본과장 ☎(310)365-7871

◆ 제1회 본당 신부님배 가족사랑 3인 농구대회

- 일시 : 4월24일 부활대축일 오후 2시, 성당 농구장
- 게임방식 : 토너먼트, Half Court *게임시간 : 12분
- 팀구성 : 선착순 24팀 접수
- 준비물 : 팀별 농구공 *참가비 : 팀 \$20
- 선수구성 : 가족단위 3명이 한팀(본당교우 only, 선수구성 원 1명의 나이가 20세 이상 차이아함)
- 상금 : 1등 \$300, 2등 \$200, 3등 \$100
- 신청 : 오늘 주일부터 4월17일(주일)까지, 사무실
- 문의 : 현석주 아오스당 체육본과장 ☎(310)594-9472

◆ 제 67차 남가주 한인 ME 첫주말 수강생 모집

- 날짜 : 2011.5.6(금)-5.8(일)
- 장소 : Mary & Joseph Retreat Center
- 등록비 : \$50(부부당) * ☎(213)458-3356 : 김희연 루시아

◆ 본당설립30주년 기념 종합예술대전 준비

- 일시 : 9월18일(주일)~24일(토)
- 전시작품 : 서양화, 동양화, 조각, 서예, 사진, 공예, 퀼트, 한국화, 민화, 꽃꽂이 등 백삼위교우들의 취미활동 작품
- 가칭 준비위원 : 김윤진 카타리나, 김선제 바오로, 한장환 안토니오, 이명순 크리스티나, 이명렬 라파엘, 김선영 글라라
- 문의 : 이명렬 라파엘 ☎(310)749-0278

◆ 친교자리(주일 점심나누기) 봉사담당 소공동체

- 3월27일(주일) : P.V. 1반(육개장 \$3)
- 4월3일(주일) : 故 권순봉 요안나 님의 유족(권태만 실베스텔&순애 데레사)께서 모친의 장례미사에 감사하는 마음으로 전신자들에게 친교점심을 제공합니다.

지난 주 우리들의 정성

교무금	강태홍	고천용	김관기	김상규	김우용	김윤진
	김재영	김정엽	김정웅	김찬구	나경흠	노세미
	박동수	박상준	박완철	배태임	변복순	신순철
	엄세종	오명섭	오진	우영희	육근주	윤희동
	이인두	이현주	익명	전동훈	정열모	최길주
	최수복	최재은	최현찬	황인중	황지영	
	합계 : \$3,365					
미사헌금 : \$3,073						
성전헌금	강태홍	고천용	김관기	김우용	김윤진	김정엽
	김찬구	나경흠	노세미	박동수	박완철	변복순
	신순철	엄세종	윤희동	이일길	이현주	익명
	전동훈	정열모	최길주	최수복	최재은	최현찬
	황인중	황지영				
	합계 : \$1,735					
주보광고 후원 : \$1,500(감사합니다.)						

공지사항

◆ 미주한국학교연합회 장학생에 김명선 학생 선발

- 지난 3월12일 실시된 미주 한국학교연합회 우수장학생에 백삼위 한국학교에 다니는 김명선 재노베와 학생(8학년)이 선발됐습니다. 장학금으로 \$200을 받았습니다. 축하합니다.

◆ 주일학교 사순 피정

- 일시 : 4월1일(금)~3일(주일), 오후 4시 성당 출발
- 장소 : 테메클라 꽃동네 피정센터
- 대상 : 7학년~12학년
- 준비물 : 슬리핑백, Pillow, Towels, 세면도구, 여벌옷, 운동화(no sandal/slipper), 재킷, 선데이스쿨 Red Shirts, Sun Block, 주일헌금

◆ 고등부 견진성사 (주일학교 10학년 이상)

- 일정 : 5월 13일(오후 7시30분-9시): 리허설
5월19일 (오후7시): Reflection
5월20일(오후7시): 견진성사
- 장소 : St. Margaret Mary 본당(Lomita)
- * 신청자는 위 3일 일정에 모두 참여해야 합니다.

남가주 소식

◆ 영화와 함께하는 피정

- 일시 : 4월9일(토) 오전 10시~오후 2시
- 영화 : 패치 아담스(Patch Adams), 로빈 윌리엄스 주연)
- 장소 : 성 프란치스코 한인성당 ☎(310)324-8159
- 지도 : 황광우 요셉 신부(콘벤투알 프란치스코 수도회)
- 피정비 : \$20

◆ 성골롬반 외방선교회 성소자 영어피정

- 일시 : 4월21일(목)~24일(주일)
- 주제 : Come and See!(와서 보라!)
- 대상 : 선교사제 성소에 관심있는 20~31세의 남성
- 장소 : 텍사스주 엘파소의 성골롬반 선교센터
- 문의 : 성소담당 최용훈 요셉 신부 ☎(323)388-7737

◆ 제3회 남가주 청년연합 찬양수련회

- 일시 : 4월29일(금)~5월1일(주일)
- 주제 : "주님 저의 소리를 들으소서!"
- 장소 : PCCCK(빅베어 레이크)
- 대상 : 남가주 한인가톨릭청년
- 회비 : \$110 * 문의 : ☎(714)200-9862 김정옥
- 주관 : 남가주 한인가톨릭 청년찬양팀/성가대연합

◆ 가톨릭신문사 주최 제2회 정통 크루즈 성지 순례

- 일시 : 4월27일부터 15박16일
- 내용 : 이탈리아, 이스라엘, 그리스, 터키 4개국
- 경비 : \$4,300(라지내측), \$5,100(발코니)
- 문의 : 삼호관광 ☎(213)427-5500

소공동체 반모임 안내

소공동체 부 장		김씨니 클라라	(310)612-8840
차 장		박희자 마리아	(310)325-6982
차 장		이경수 헬레나	(310)972-9193
구역/장	반	반장	장소/날짜
토런스 동 유현자 안나	1	변혜경 올리아나 920-5153	신현화 헬레나 533-0454 3/15(화) 오후 7시 성당
	2	한창주 요아킴 530-7702	신중철 아브라함 530-7702 3/12(토) 오후 7시
	3	문지숙 엘리사벳 800-5612	문지숙 엘리사벳 800-5612
토런스 서 장정진 베로니카	1	이진향 아네스 989-0366	박인식 토마스 989-0366 3/20(주일) 오후 5시
	2	이크리스 아가토 619-7763	박상원 야고보 323-7624101 3/12(토) 오후 6시
	3	권영옥 루시아 720-2876	이기숙 엘리사벳 650-1515 3/14(월) 오전 10시30분
토런스 남 박희자 마리아	1	이명자 마가렛 433-9075	현석주 야오스당 433-9075 3/25(금) 오후 7시30분
	2	이경수 헬레나 972-9193	양희숙 오티리아 972-9193 3/9(수) 오전 10시30분 성당
	3	안희경크리스타나 750-4051	김유미 사비나 738-5305 3/12(토) 오후 6시
토런스 북 최미열 클라라	1	조화숙 안젤라 213-272-8393	이용식 베드로 516-0818 3/11(금) 오후 7시
	2	1반과 같음	1반과 같음
하버 카슨 윤남열 세라피나	1/2	박혜경 레나타 808-5005	박종열 토마스아퀴나스 784-0460 3/12(토) 오후 7시30분
	3	이영희 카타리나 518-1736	이영희 카타리나 518-1736
P. V. 김명재 아가다	1	남경희 베네딕다 384-3289	남성철 베네딕도 377-6659 3/11(금) 오후 7시
	2	김숙희 유소사 544-4807	김관기 라파엘 544-8908 3/12(토) 오후 6시30분
	3	박은혜 클라우디아 377-7063	허정자 리타 377-3820 3/11(금) 오후 7시
	4	강숙경 도미니카 541-0767	변복순 베로니카 592-6945 3/8(화) 오전 10시30분

이번 주 단체 모임

3월 사목회	오후 2시
--------	-------

다음 주 단체 모임

구역장 / 반장 회의	오후 1시
-------------	-------

떠돌이 이야기

눈물의 웃음 기도

저만의 버릇 중에 '웃음기도'가 있었습니다. 아무 때나 별쭉 웃듯 주님을 부르는 일입니다. 입가를 벌려 웃음을 만들면서 '주님 웃음 받으세요' 하는 기묘한 버릇입니다. 이 버릇의 시작은 얼굴에서 탄력이 빠져나가면서 주름이 생길 무렵부터입니다. 작업을 하다 얼굴을 들었을 때 거울 비슷한 가구에 비친 얼굴이 섬뜩하도록 찡그린 표정이었습니다. 대부분의 시간을 책상 앞에서 보내면서 그렇게 어두운 느낌의 표정으로 일을 하리라고는 스스로도 생각 못한

일이었습니다. 읽거나 쓰는 일이 하느님까지도 잊고 몰두해야 하는 것이긴 하지만 그 일은 저에게 힘겹기는 해도 결코 찡그릴 일은 아니었습니다. 아마도 정신이 집중된 상태의 긴장된 표정이 그리 험할 만큼 굳은 것이었던가 봅니다.

스스로도 무안해서 얼떨결에 나온 것이 '주님 저 억지로 일하지 않는다는 거 아시지요? 제 웃음 받으세요' 하는 중얼거림이었습니다.

우연치 않게 시작된 저만의 그 기묘한 버릇은 일할 때 뿐 아니고 차츰 우울할 때, 지루할 때, 힘들 때, 장소를 가리지 않게 되었습니다. 20여 년 전 순교소설을 집필한 후 자주 입속으로 뇌이던 신앙선조들의 화살기도 '예수마리아 요셉' 만큼, 아니 어쩌면 그보다 더 자주 하는 은밀한 버릇이 되었습니다.

일을 하다 말고 별쭉 웃는 그것을 속으로는 기도라고 우격다짐의 제목을 부치고, 정말로 속마음은 순간마다 하느님께 한 걸음씩 다가가게 해달라는 간절한 뜻이라고 주님께 떼를 쓰듯 응석을 부렸습니다.

그렇게 버릇들인 저만의 '웃음기도'는 참 오래도록 되풀이되면서 주님과과의 든든한 통로가 돼 주었습니다. 그런데 근래에 그 든든한 통로조차 까맣게 잊고 말았습니다.



다시 컴퓨터 앞에 앉아 자판 두드리기를 시도하면서 비밀스런 주님께의 통로가 아프게 떠올랐습니다. 그리고보니 웃은 게 언제인가 싶기도 했습니다. 의례적인 헛웃음이 아닌 진정한 웃음을 그 사람 간 후 한 번이라도 웃은 적 있던가 싶었습니다.

마음을 다잡고 뻑뻑한 입가를 벌려 '주님 웃음 받으세요' 하는데 먼저 눈물이 쏟아졌습니다. 하지만 이제 압니다. 고였던 눈물이 흘러내리기 전에 저 혼자 마르듯 웃음기도 속의 눈물도 그렇게 마를 것임을. 그 사람은 데려가셨지만 그 사람을 주신 축복의 시간들은 제 속에 있으므로, 다시 일하고 일하며 웃음기도 드릴 수 있을 것임을.

◆노순자 챔마 / 소설가

주보로 배우는 교리

☞ 해마다 부활 축일 날짜가 다른데 어디에 기준을 두고 정합니까?

부활 축일은 구약의 빠스카 축제와 연관됩니다. 유대인들은 초봄의 만월을 니산(Nisan)이라고 하는데 이 달 14일을 빠스카 축일로 지냈습니다. 그리고 서방교회에서는 니산달 14일이 지난 그 다음 주일을 부활 주일로 지냈습니다. 그 후 325년 니체아 공의회에서는 3월21일 춘분이 지난 다음 만월을 기준해서 첫 번째 맞는 주일을 부활 주일로 확정했습니다. 올 부활주일은 4월24일입니다.

부활 주일은 춘분과 음력이 연결된 일자이기 때문에 매년 달라지게 되며 그해 전례력에도 변화를 가져오게 됩니다. 즉 사순절과 성신강림주일, 예수승천축일 모두가 부활 주일에 따라 결정이 되는 것입니다. 부활 주일은 모든 전례의 중심이며 주일 주의 주일로서 다음 주일까지 일주간은 부활 팔부 축제를 지내고 있습니다. 예전에는 부활 주일에 세례 받는 사람들이 흰 옷을 한 주간 동안 입고 있다가 벗는다 하여 부활 들깨주일을 사백 주일(御白主日)이라고도 했습니다.